



저 동백에 뛰고 있는 제주 섬 사람들의 심장

전영실의 '동백이 피기까지는' 8월 30-9월 6일 심헌갤러리 섬세하거나 거친 선 심장에 광폭한 시절 견뎌온 나날들



전영실의 '동백이 피기까지는 5'

20대 후반 어느 날의 기억에서 그의 이야기는 시작된다. 미술교사로 재직하며 학교 미술실에서 풍경을 그리고 있던 그는 "더 이상 이 짓은 못하겠어"라며 붓을 던져 버렸다. 아이들에게 그리는 방법을 가르칠 순 있었지만 자신이 그림을 그려야 할 이유는 찾지 못했다. 그리고선 작업을 멈췄다.

그림을 다시 시작하기까지 오랜 시간이 필요했다. 풍경이 '나'이고 '나'가 '풍경'임을 아는 데까지 걸린

세월이었다. 2019년 '오늘 잘 놀았어'란 주제로 59세에 첫 개인전을 열었던 전영실 작가다. 제주대 미술교 육과를 졸업했고 지금은 제주명상에 슬공동체 대표로 있는 그가 대상과

마음이 하나된 작품들로 세 번째 개인전을 갖는다.

이번 개인전은 '동백이 피기까지는'이란 이름을 달았다. 노모가 있는 요양원을 오가며 깨달은 삶의 순간을 첫 개인전에 담아냈듯, 이번에도 제주 바람이 싫다며 고향을 부러워했던 미안한 마음에 차마 제주4·3을 화폭에 꺼내놓지 못했던 작가가 땅 위에 떨어진 동백을 한아름 안고 작업실에 와서 보고 또 보며 얻은 생각들로 태어났다.

그가 아끼 동백꽃에서 발견한 건 제주 사람들의 심장이었다. 붉은 심장, 푸른 심장, 춤추는 심장, 아픈 심장, 꽃 피는 심장 등 광폭한 시절을 견뎌온 우리들의 지난 날이 동백의 심장처럼 뛰고 있었다.

작가는 그 감정들을 다양한 선으로 표현했다. 부드럽고 섬세하게,

자유롭고 거침없이, 때로는 머뭇머뭇 망설이면서 그려진 선들은 이 땅에 살아온 이들의 모습을 상징한다. 특히 일제 수탈에 맞선 제주해녀항쟁으로 옥고를 치렀던 인물을 다룬 허영선의 시 '해녀 김옥련'을 읽은 뒤 그려낸 '바라바라꽃' 같은 작품에선 주먹을 권 손으로 밀고 나가 선을 사용하며 우리가 잊고 있었던 심장을 형상화했다. '2021년 61세 화가'는 '1931년 22살 해녀 김옥련'에게 또 다른 '해녀의 심장'을 그려 바쳤다.

전 작가는 "동백꽃으로 보일 때는 그저 그렇게 그려졌는데 붉은 심장으로 변한 순간 손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백과 나는 따로 있지 않았다"는 말로 이들 작업의 배경을 밝혔다. 전시는 이달 30일부터 9월 6일까지 심헌갤러리. 전선희기자



이지유의 '멜트게' (2018)

떠나간 스승을 기리는 헌정의 화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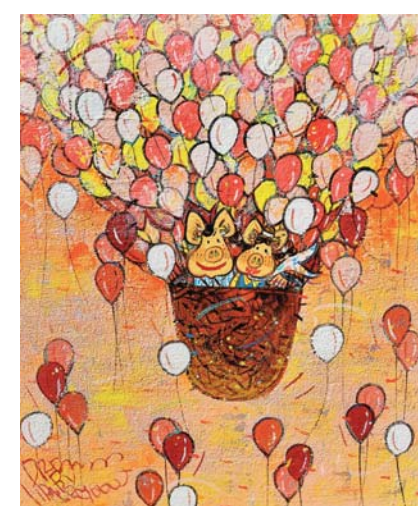
김택화미술관 내일부터 '김택화와 제자들' 기획전 제주 중견 작가 27명 출품

김미열, 김성오, 김순겸, 김연숙, 김연실, 김원구, 김현숙, 문행섭, 박경훈, 손일삼, 양목, 양천우, 오승익, 이경은, 이옥문, 이지유, 장여진, 한용국, 홍진숙 등 27명이 참여한다. '김택화'로 명명할 수 있는 화풍을 잇고 넘으며 저마다 다른 '풍경화'를 변주해내고 있는 작가들의 오늘을 만날 수 있다. 고보형의 '고 김택화 선생님을 그리다' 등 스승에 대한 그리움을 담은 작품들이 나온다.

일평생 제주 풍경과 사람들을 화폭에 담았던 화가 김택화. 그의 가르침을 새기며 하나둘 제주 미술계의 주역으로 자리 잡은 지역 미술인들이 스승을 기리는 작품전을 갖는다. 제주시 조천읍 신흥리에 들어선 김택화미술관이 마련한 '김택화와 제자들'전이다.

이달 27일부터 10월 17일까지 미술관 2전시실에서 이어지는 이번 전시엔 강부인, 고경희, 고민철, 고보형, 고순철, 고운산, 김남흥, 김명희,

이승연 관장은 "이번 전시는 현재 제주 화단의 중심이 된 작가들의 다양한 작품을 관람하며 제주 미술사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 다음 세대로의 지역성의 전승과 세계화의 방향성을 예측하게끔 할 것"이라고 했다. 문의 070-8778-0627. 전선희기자



한상운의 '행복한 여행'

'행복한 돼지'가 있는 여름날 전시장

이름갤러리 한상운 초대전 '이루다 인 제주' 8인전도

제주시 연동에 있는 이름갤러리가 '행복한 돼지'가 있는 풍경으로 8월 전시장을 채우고 있다. 지난 3일부터 시작된 팝아티스트 한상운 초대전이다.

일본에서 풍자만화를 공부한 한상운 작가는 10년 넘게 돼지를 그려왔

다. 동양의 획과 서구의 색면을 넘나든다는 그의 작품 속 돼지는 "인생의 희로애락을 가로질러 행복을 쟁취한" 존재로 "갖은 풍파 속에서도 여유를 즐기는 행복한 자화상"(안현정 미술평론가)으로 여겨진다.

'행복드림-해피 피그'란 제목으로 한 작가의 작품을 펼쳐놓고 있는 이름갤러리 측은 "이 전시를 통해 코로나 팬데믹과 한여름 더위를 씩씩하게 이겨냈으면 좋겠다"고 했다. 전시

는 이달 30일까지 이어진다.

같은 기간 이름갤러리의 또 다른 전시장에서는 '이루다 인 제주'란 이름 아래 8인 초대전이 진행되고 있다. 초대 작가는 김성진, 김연화, 김영진, 김효정, 박지우, 송재운, 지비지, 황정희다. 풍경에서 마주친 너, 캐릭터 속에 웃는 나, 청춘시대 등 세 부분으로 나눠 저마다 다른 빛깔의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갤러리 개방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일요일은 오후 2시부터). 문의 070-7795-5000.

전선희기자 sunny@ihalla.com

문화가 짝지

제주문인화연구회 정기전

제주문인화연구회가 '묵향의 잔치'란 이름으로 저지문화예술인마을 내 서담미술관에서 이달 27일부터 9월 26일까지 스물네 번째 회원전을 연다.

이번 전시에는 장경모 회장 등 25명이 제주를 여러 시선으로 표현한 문인화 작품을 선보인다. 2004년 창립했고 2016년 첫 전시를 개최한 제주문인화연구회는 최형양 작가의 지도 아래 35명이 회원으로 있다. 에일묵향회, 군방도, 서연회 등 3개 단체에서 각기 활동하며 제주 풍경을 담은 작품 발표 등으로 제주 문화를 알려왔다.

제주서예문화축제 개최

한국서예협회제주도지회 주최 2021 제주서예문화축제가 이달 21~26일 문예회관 전시실에서 열리고 있다.

이번 제주서예문화축제는 전국 공모로 치른 제28회 제주도서예대전 입상작 전시(1전시실), 제주도서예대전 초대작가로 한국문인화협회 제주지회장을 지낸 김미형 초청전(2전시실), 40여명이 참여한 2021제주서예협전(3전시실)으로 꾸며졌다. 앞서 서예협회도지회는 전국 공모 제주도서예대전을 통해 일반부 대상 없이 우수상 3점, 특선 38점, 입선 62점을 선정했다.

헤더 브라운 '서프 아트' 전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해변의 월정예비뉴에 들어선 월정아트센터에서 하와이 노스 쇼어 태생의 서퍼이자 작가인 헤더 브라운 작품전이 열리고 있다.

지난달 10일 시작돼 8월 31일까지 이어지는 이 전시는 '하와이제주 인월정'이란 이름을 달았다. '서프 아트' 작가인 헤더 브라운은 바다, 서핑, 파도 등을 소재로 아크릴물감 등으로 작업한 그림을 펼쳐놓고 있다. 잭 노엘, 매튜 앨런 등 하와이에서 활동하는 다른 서프 아트 작가들의 작품도 나왔다. 문의 784-9050.

'문화공간 비수기' 기획전

서귀포 강정마을 감귤 선과장을 활용한 '문화공간 비수기'에서 '코랄 유니버스'와 '멀리서 골짜기가 깊어지고' 두 개의 전시가 열리고 있다.

'코랄 유니버스'는 바다 속 산호 우주 세계로 설정해 영상, 사운드, 설치 등으로 펼친 작업으로 고희종, 심문정, 이소정 작가가 참여했다. 김성은의 '멀리서 골짜기가 깊어지고'는 예멘에서 온 친구와 우정을 담은 영화를 만들던 겨울에 제주 빈 공간들을 찾다 우연히 지리류와 마주하게 된 여정을 담은 비디오 에세이다. 이달 31일까지.

김순선·이무자 시집 등 제주 문학도서 잇단 발간

이 계절 제주에서 길어올린 문학이라는 샘물이 창작집 안에 차곡차곡 담겼다. 시집에서 수필집까지 다채롭다.

2006년 '제주작가' 신인상으로 등단한 김순선 시인은 '따뜻한 국물이 그리운 날'을 펴냈다. 어느 날 숲으로 난 오솔길을 혼자 헤매다 돌아와 보니 어느새 칠순이 되었다는 시인은 "한 줄기 위로의 바람이 되길 소망"하는 시편들로 신작 시집을 채웠다.

슬픈 날, 서러운 날, 서툰 날 등 온갖 날들을 겪어온 시인은 '숨소리'에서 "물위로 솟구쳐 오르기 위해/ 물속에서 수없이 발길질 하듯" "세상을 사는 것은/ 그런 것이다"라고 했다. 열림문화. 1만원.

이무자 시인은 '흐트러진 오늘을 비워낸다'를 내놓았다. 향파두리성에서 영등항까지 역사와 신화를 오가는 시편들 속에 "물 한 사발 떠 올리고/ 식구들의 안위를 빌던" 시린 손의 화자가 있다. 다충. 1만원.

"인구 비례로 딱정다면 시조 시인이 가장 많은"(정용국) 제주에서 활동하는 젊은시조문학회는 일곱 번째 연간 작품집 '팬나무 손가락'을 묶었다. 일상과 자연, 제주의 문화와 정신을 정갈하게 담아낸 15명의 시조 65편을 실었다. 한그루. 1만원.

조영랑 수필가는 첫 수필집 '홀가분한 오후'를 냈다. '화단 앞에서', '그 숲에 가면', '나이 들어 좋다', '복사꽃 필 즈음' 등 그동안 발표했던 작품과 여행기를 모아 40여 편을 수록했다. 정은출판. 1만3000원. 전선희기자

참치항에서 참치요리의 아우라를 느껴보세요

제주 1등 참치!!

혼자서도 즐길수 있는 바~ 가족 연인 모임을 위한 다양한 룸~ 깨끗한 시설과 최고의 참치 맛으로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추암시항

참치 전문점

시원한 여름메뉴 참치물회 개시

점심단품특선

참치 초밥 15,000	참치회덮밥 8,000
대구지리 8,000	알탕 10,000
대구매운탕 8,000	

저녁 회코스 메뉴

VIP 95,000 진 70,000 선 55,000 미 35,000

제주시 노형동 719 예약 064-745-8808 매주 일요일 휴무